

# 선진 안전 교육 · 문화 생활화 한다

# 민관 '군산항 포트세일' 추진

### '전북도 안전교육 · 문화 진흥계획' 발표... 4대 전략 · 10대 중점과제 추진

전북도는 30일 각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안전문화운동 추진 전라북도협의회'를 갖고 '전라북도 안전교육, 문화 진흥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진흥계획은 '안전을 삶의 중심 가치로 삼는 선진 안전교육문화 생활화'를 목표로 정하고 4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전북도는 생활 속 안전교육 강화로,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생활안전교육을 전 도민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하고, 교육인원도 지난해 대비 2,784명이 증가된 1만8,3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래시장 화재, 신종 감염병 등 대규모 재난을 대비해 현장훈련 및 체험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여름이 길어지면서 여름철 물놀이 사고발생에 대비해 생존수영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의 날을 실시하고, 재난취약가구 전기가스보일러 등을 수리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승강기,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전신문고 목표관리제, 초·중·고 안전신고 학생에게는 봉사시간 인정 등을 추진하고, 안전신고 우수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해 '안전신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문화운동 협업 강화를 위해서는



30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안전문화운동 추진 전라북도협의회에 송하진 도지사가 '안전을 삶의 중심 가치로 삼는 안전교육 문화 생활화'를 목표로 정하고 4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안전문화 실천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도민안전 민관협력위원회, 재난안전 민관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평상시 재난관련 주요정책을 협의 조정하고, 재난시는 복구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민·관이 협업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줄임으로써 우리 지역의 지역안전지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와 도내 20개 기관·기업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난취약가구 시설개선, 농기계 순회 봉사, 어르신

들 무료 진료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해 교통, 화재, 자살, 감염병 등 4개 분야에 어린이보호구역, 생활권 이면도로 등 3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풍수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 재난보험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복구비용 부담을 줄여갈 것이며, 재난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사업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계획은 생활 속 안전교육 강화 등 총 61개 세부과제에 총 782억원을 투자해 추진한다.

송하진 지사는 "최근 시장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3년 만에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에 민·관이 협업체 안전교육, 문화 진흥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안전 전북'의 토대 위에서 전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물동량 확보 위해 부두시설 · 항로 · 인센티브 등 홍보

물동량 확보를 통한 군산항 활성화와 함께 항로 등을 파악하여 신규항로 개설 등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는 군산해수청, 군산시, 선사, 하역사 등 민·관 합동으로 '군산항 포트세일(Port Sales)단'을 구성하고, 군산항의 부두시설과 국제선 정기항로, 컨테이너 인센티브 지원제도 등을 설명해 군산항 화물 유치에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항 포트세일단은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중점(연 100TEU 이상 기업)으로 하며, 필요시 일반화물 유치도 병행해 물동량 확보를 추진하고, 최근 개설된 군산~중국 청도 간 신규항로와 컨테이너선박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확대를 중점 홍보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신규 시장개척을 위해 6월중 일본 현지에서 일본 선사, 화주, 포워더 등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군산항 포트세일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포트세일을 통해 화주들의 군

산항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 및 수출입 경로 등을 파악하여 신규항로 개설 등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는 (주)참프레, (주)에이유이, 한국케미라화학(주), (주)에이앤선 등 17개사를 방문해 군산항 항로 및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타 항을 이용하던 세아베스틸의 화물(30TEU/월)이 군산항을 이용하게 됐고, 대한제분, 신성식품, 도레이케미칼의 신규화물(70TEU/월)을 유치하는 성과도 이뤘다.

한편 군산항은 지난해 전체 물동량이 1만9,613천톤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했고, 컨테이너화물은 5만 6,564TEU로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2월말까지 전체 물동량은 2,916천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고, 컨테이너화물은 8,096TEU를 처리해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났다.

인재용 기자

## 도, 저출산 · 고령화대책 시행계획 수립

전북도는 정부의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의 추진방향에 맞춰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줄이기 위해 올해 저출산·고령화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에는 도 교육청도 동참해 11개 과제를 시행 추진하며, 도는 저출산대책 185개 과제에 7,026억원, 고령화대책 133개 과제에 770억원을 투입해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저출산 대책은 일·가족·교육 삼각모형의 선순환 구조 안에서 정책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다.

청년층에게는 창업 활성화 및 청년 취업지원, 행복주택 건설과 빈집 임

대 등 청년 결혼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출산·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및 맞춤형 보육제도를 시행하며, 일·가정양립 정책 확산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및 육아 참여 활성화 정책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고령화대책으로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고령자 건강생활보장,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 3개 분야로 13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인구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인구정책을 추진할 전담부서를 신설해 과소화 마을, 청년정책 등 통합적 인구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 등산목 9개소 안전지킴이 운영

전북도 소방본부는 4월 1일부터 대등산 등 주요 산 9개소에서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한다.

'등산목 안전지킴이'가 운영되는 등산로는 모악산, 대등산, 지리산(바래봉), 내장산, 덕유산, 내변산, 강천산, 선운산, 마이산 등 9개 길목이다.

5월말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운영되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4인 이상이 고정 배치돼 '간이응급의료소' 설치해 건강체크 및 심폐소생술 교육과 사고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이송 활동을 실시하며 또한 산악시설물 점검, 안전산행 캠페인 등도 전개한다.

## 전북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자립 지원 '챌린지UP 프로젝트' 운영

전북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주관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선정돼 지난 2월부터 '챌린지UP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챌린지UP 프로젝트'는 도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문 직업훈련 또는 취업연계 전 직업선택과 관련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자립 동기강화 및 취업의지를 고취시키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총 4단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1단계 개별상담과 전문심리검사를 통

해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적성을 분석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2단계 소셜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소셜아카데미는 진로·직업탐색 및 이미지메이킹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 사회진입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으며, 2단계를 수료한 청소년들은 3단계 전문 직업훈련 후 3개월 간 인턴십 과정을 통해 전문 직업인 멘토가 매칭될 예정이다.

각 단계별로 운영되는 '챌린지UP 프로젝트'는 올해 2회에 걸쳐 운영될

계획이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직업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진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립 동기를 강화하고 진로탐색의 시간을 갖게 될 예정이다.

'챌린지UP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 정00(여, 23세)은 "자신의 환경 때문에 꿈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중한 기회를 갖게 돼 너무 좋다"며 "꼭 꿈을 향해 도전하고 앞으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전북도, 맞춤형 규제개혁 교육 실시

전북도는 30일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도·시·군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제1기 맞춤형 지방규제개혁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규제에 대한 이해와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을 도모하고, 다양한 규제개혁 현장사례를 통해 도민의 시각으로 규제개혁을 다시 바라봐, 도민을 위한 규제개혁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통해 도민에게 필요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도

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 불편사항인 생활 속 규제개선, 제4차 산업혁명도 정책심사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공무원이 사명감을 갖고 먼저 변화되는 모습으로 도민들의 열망에 귀 기울여 도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